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G지역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Reading Effectiveness

- represented mainly from special high School in G city

정 대 근(Dae-Keun Jeong)*

홍 현 진(Hyun-Jin Hong)**

〈 목 차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II. 이론적 배경

1. 독서태도

2. 독서 롤모델

3. 도서관 영향

4. 독서유효성

III. 연구설계

1. 측정도구

2. 연구 가설 및 자료 분석방법

IV. 독서유효성 영향 요인 분석

1.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2. 영향요인별 독서유효성 차이 검증

3. 영향요인에 따른 독서유효성

영향력 검증

4.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 간

상관관계 검증

V.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부모, 교사, 친구), 도서관 영향(도서관이용, 도서관방문, 도서관 심리)을 제시하였고, 독서유효성과 독서교육영향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제시한 영향 변인들의 모든 차원에서 영향의 정도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독서태도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독서유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독서유효성,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reading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ed three things as factors that influence reading effectiveness and they are an attitude towards reading, reading role models (parents, teachers, peers), a library influence (library use, library visit, library psychology).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of reading effectiveness and the influence of reading education. As results, most suggested factors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reading attitude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public libraries also influenced greatly in students' reading effectiveness.

Keywords: Reading effectiveness, Attitude towards reading, Reading role models, Library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 (basicwindy@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hjhong@chonnam.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13년 8월 19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사회적 성격은 지식기반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원과 노동력,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요소를 지식과 결부시켜 창의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개인 및 국가의 발전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국가적 지식과 정보역량을 체계화하고, 국민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함으로써 개인 및 국가의 부와 창의력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

독서는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음은 물론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국가차원의 지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다. 다시 말해 독서는 단순하게 보면 ‘책을 읽는’ 현재적 행동이지만, 그 내면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복잡한 정신 작용이며, 다양한 지적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작용하는 지적 활동이다. 이러한 지적 활동은 지식이 기반이 되는 현 사회에서 많은 자원과 노동력, 정보를 지식과 결부시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개인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교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독서현실은 매우 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3-4명은 1년 동안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독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독서율 역시 2010년 92.3%에서 2011년에는 83.3%로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독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율은 매년 감소하는 현상을 볼 때 우리의 독서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읽기능력은 핀란드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평가한 항목에서는 읽기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즐거움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독서는 읽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성인이 된 후 독서에서 점점 멀어지

1) 한운옥,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p.18.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2), pp.31-40. 청소년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는 조사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2010년에는 1학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2011년에는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변화추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10% 이상의 차이는 조사기관과 가중치를 고려해도 상당한 차이임에 틀림없다.

3) 권은경,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252-255.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독서 관련 연구자들은 과거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정의적 영역인 독서 태도, 독서 흥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의 효과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효과 측정을 위해 독서유효성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을 통해 이루어진 독서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독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독서에 관한 연구는 독서교육, 독서태도, 독서환경, 독서성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독서에 대한 단편적인 면만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조직적 차원의 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유효성의 측면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독서태도 및 독서실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초창기 독서 실태에 관한 연구로 김병주⁴⁾는 독서에 대한 태도, 독서방법, 독서환경, 독서량, 독서경향 등을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분석하였다. 이후에도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독서태도 및 독서실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독서환경과 독서태도에 있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독서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독서태도도 높게 나타났다.⁵⁾ 독서에 있어 지역적 차이는 농촌이나 도서·벽지의 아동보다 대도시 아동의 독서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⁶⁾ 아동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공포물과 단순하고 자극적이며 오락과 흥미위주의 만화책과 같은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독서태도 관련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독서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6학년의 독서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학업성취도에 주력한 학교보다 독서의 즐거움에 주력한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태도가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⁸⁾ 부모의 읽기태도와 학생의 읽기태도간의 관계는 부모의 읽기태도가 학생들의 읽기 태도 형성에 많은

4) 김병주, 아동의 독서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1975).
 5) 변미경, 초등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독서 지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2013).
 6) 전개논문.
 7) 이경미, 초등 학생의 독서 성향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 지도의 방향(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 전공, 2006).
 8) 이연옥,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서태도에 관한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pp.293-309.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⁹⁾ Mathewson은 자신의 연구모형을 통해 독서태도가 독서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독서태도가 독서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독서의도의 매개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⁰⁾ 또한 Mckenna & Kear은 독서태도는 독서몰입과 실천에 영향을 미침으로 독서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독서태도와 독서능력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¹¹⁾

도서관 영향 변인 측면에서의 독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로 서울시 24개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독서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독서회의 연령층 다변화 및 주제의 다양화 독서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주민요구를 수렴한 독서회 구성지도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¹²⁾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행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독서관련 행사를 분석하였으며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관련 행사 활성화 방안으로 전담부서 조직, 절기에 따른 다양한 행사, 독서진흥 홍보활동 등을 제안하였다.¹³⁾ 효과적인 독서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학생 독서실태조사 연구에서 대구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학생들의 독서행태가 확립되지 못한 요인으로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환경과 사서교사의 저조한 배치율을 지적하였다.¹⁴⁾ 학교도서관의 독서지도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확보,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지침, 독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장서개발, 교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체계의 확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¹⁵⁾

II. 이론적 배경

1. 독서태도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모두를 좋은 독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독자란 읽은

-
- 9) 김대희, 엄혜영, “부모의 읽기 태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생의 읽기 태도와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3권, 제4호(2012), pp.39-51.
- 10) Grover C. Mathewson,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R. B. Ruddell et al.,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4th ed.(Newark, D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4), pp.1131-1161.
- 11) Michael Mckenna, Kear J. Dennis and Randolph A. Ellsworth, “Children attitude toward reading :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0, No.4(1995), pp.934-956.
- 12) 이경민,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2003), pp.127-145.
- 13) 이만수,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pp.409-429.
- 14) 김종성, “효과적인 독서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학생 독서실태조사 연구,” 경성대학교 인문학 논총, 제11권, 제2호(2006), pp.235-263.
- 15) 장윤금, “학교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pp.27-46.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읽는 것을 좋아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독자를 말한다. 스스로 읽을 거리를 찾아가며 평생동안 읽기를 즐기는 독자가 되려면 읽기 능력도 훌륭해야 하지만, 읽기를 싫어해서도 안 된다. 즉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¹⁶⁾ 책을 아무리 잘 읽을 수 있는 독자라 하더라도 독서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여가선용 및 정보의 획득에 있어 독서 이외의 다른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언제라도 독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독서 장애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24.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원이나 학교, 컴퓨터, 인터넷, 텔레비전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¹⁷⁾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낮은 독서율의 원인이 독서 이외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요인보다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 부정적인 독서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태도란 독서를 향한 태도(attitude towards reading)를 말한다. 독서란 책을 읽거나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라면 태도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준비하는 주관적인 혹은 심리적 상태를 제공하는 것”¹⁸⁾ 즉 정신적으로 준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기본적인 개념과 해설이 다르고, 태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¹⁹⁾

Eagly & Chaiken는 자신의 논문에서 태도에 대한 정의를 ‘좋고 싫음의 정도를 가지고 특정 대상을 평가함으로써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태도의 개념으로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되는 대상,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음의 감정이나 판단을 의미하는 평가, 사람의 내적 상태 혹은 성향을 의미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다.²⁰⁾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개념을 차용하여 정혜승은 읽기태도²¹⁾를 ‘읽기를 대상으로 좋고 싫음의 평가를 내리고 그러한 평가에 따라 읽기 상황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일관되게 산출하는 심리적 경향성’²²⁾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란 ‘개인이 독서 자료나 독서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으로 독서를 실시하거나 회피함에 있어 일관되게 실행하는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16) 옥정인, 읽기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99), p.1.

17) 문화체육관광부, 전계서, p.46.

18) Phil Erwin, 태도와 설득, 고은경 역(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6), p.3.

19) 변우열, “독서태도 모형 분석을 통한 독서태도 조사 설문 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141.

20)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CA : Thomson Wadsworth, 1993), pp.1-5.

21) 영어 원문의 ‘Attitude towards Reading’에서 ‘Reading’은 명사로 ‘독서’와 ‘읽기’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어교육의 측면에서는 보편적으로 ‘읽기’로 번역하고 있으며 독서교육의 측면에서는 ‘독서’로 번역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22)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제16권(2006), p.390.

정의하였다.

독서 상황에서 독서태도의 중요성은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연구에서 많은 부분 증명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Matthewson은 자신의 연구모형을 통해 독서의 태도가 독서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발견하였으며, Michael Mckenna 등은 독서태도는 독서몰입과 실천에 영향을 미침으로 독서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Wixson과 Lipson은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독서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독서태도가 독서력을 비롯한 독서성취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²³⁾

2. 독서 롤모델

사람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성장한다. 따라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위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 환경적 요소 및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 이는 어린 시절의 독서방법과 습관이 책을 싫어하거나 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책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독서가로 성장시킬 수도 있다. 이는 올바른 독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독서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서태도의 경우 아동기에 적립된다는 학설이 주를 이루지만 청소년기에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독서환경의 측정요소는 가정적 환경, 학교의 독서환경, 국가와 사회의 독서환경 등이 있다. 가정의 독서 환경은 독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이 크고, 부모의 심리적인 관심과 영향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학교의 독서환경 요소들은 교사의 인성, 교사와 학생의 친밀관계, 학교 행정, 도서관 및 독서자료, 독서분위기 등 다양하다. 국가와 사회의 독서환경 요소는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 등의 유무와 집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독서환경은 독서 능력이 발달하여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깨닫게 되는 초등학교까지의 시기,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깨닫게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독서경험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환경의 정비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 등 어느 곳이나 좋은 독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²⁴⁾

23) K. K. Wixson and M. Y. Lipson, *Reading Diagnosis and Remediation*(Grenview, IL: Scott, Foresman, 1991), Michael C. Mckenna and Dennis J. Kear,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 *The Reading Teacher*, 43.9(1990), p.626에서 재인용.

독서환경은 독서태도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독서태도의 형성은 환경적인 자극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독서환경은 가정의 독서환경, 학교의 독서환경, 국가와 사회의 독서환경 등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환경의 다양한 요소 중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는 독서환경의 요소 중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으며 부모, 교사, 친구를 영향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도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삶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부모와 더불어 청소년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친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 도서관 영향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서관을 ‘책 보관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서교육에서도 도서관을 단순히 읽고 싶은 책을 빌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생활과 도서관 이용률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이용을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대출하거나,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관을 즐겨 찾는 ‘도서관 이용’ 차원과 둘째로 친구들과의 만남, 시험공부 등을 위한 장소, 단순히 주어진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차원의 ‘도서관 방문’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많은 도움을 준다거나 도서관 이라는 장소가 주는 편안함의 정도를 느끼고 있는 ‘도서관 심리’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차원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와 도서관의 이용과 인식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4. 독서유효성

최근 독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관심의 증가로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24) 박경빈, 권혁민,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제21권, 제1호(2011), p.4.

25) T. Parsons and R.F. Bale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New York : The Free Press, 2002), 권미경, 도서대여를 통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12), p.10에서 재인용.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차원에서 시행된 독서프로그램들을 통해 얻어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독서와 관련한 노력들의 효과를 경영학적 차원의 활동유효성과 교육심리학적 차원의 교수효과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독서교육에 대한 효과를 독서유효성이라 명명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경영학적 차원의 활동유효성(Activity effectiveness)이란 자신 혹은 조직이 세운 활동 목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용어로 보고 있으며, 한 개인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양, 개인이 생산하는 능률성,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응력, 지식과 인식을 의미하는 정체감, 환경에 대한 현실검증능력,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욕구와의 통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활동유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적으로 다수의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과 활동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⁶⁾

개인에 대한 활동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경영학 차원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다루고 있었다. 즉, 조직의 매출액이나 연평균 성장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 투입량과 산출량에 의한 목표 달성 정도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양적인 측면에 한정하고 있어 한 개인의 전체적인 국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²⁷⁾ 최근 개인의 활동유효성 평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활동유효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변수들이 좀 더 구체화·체계화 되고 있으며, 통합적 접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즉 한 개인이 활동을 통해 느끼는 문화와 심리 내적인 평가, 몰입도나 만족도와 같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변수와 같은 주관적 인식을 활동 유효성으로 간주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²⁸⁾

교육심리학 차원의 교수 효과성(teaching effectiveness)은 가르치는 일의 효과를 의미한다. 교수효과성이란 교사가 이룩한 결과 즉 학생이 어떤 특정한 교육목표를 향해 나아간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교사의 지식, 신념, 헌신, 추상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원(교수내용, 학습자료)을 투입하여 교사의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방법에 의하여 학생의 특정한 목표(학업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²⁹⁾ 교수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사특성 변인(교수

26) 구혜영, 자원봉사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의 자원봉사자 활동유효성에 대한 영향(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5), p.18.

27) R. E. Quinn and Rohrbaugh J.,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29, No.3(1983), pp.363-365.

28) 구혜영, 전계논문, p.19.

29) 정하보, 이정열, "교사의 셀프리더십, 팀워크, 교수효과성, 업무효과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능력, 정의적 특성), 상황변인(학생특성, 수업특성), 과정변인(교사의 수업행동, 학생의 학습행동)이고, 이 세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변인(수업결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이 있다.³⁰⁾

이를 정리하면 독서유효성은 개인이 독서활동을 통해 얻는 내적 평가로 독서활동에 대한 몰입, 만족, 지속의지와 같은 정의적 개념을 개인의 주관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성과를 독서유효성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독서유효성의 하위요소로는 경영학적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개념을 차용하여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지속의지 등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가정, 학교, 사회가 실시한 직·간접적 독서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독서만족과 저자가 창조해 낸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독서몰입,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독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개념의 독서지속의지 등을 독서유효성의 하위 측정요소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을 측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이용자 특성 항목과 영향변인 항목으로 나누었다. 영향변인 항목 중 도서관 영향은 도서관 이용(도서 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 등), 도서관 방문(시험 공부, 과제, 친구만남 등), 도서관 심리(도서관 이용에 있어 심리적인 편안함 등)로 세분하였다.

독서태도에 관한 설문문항은 McKenna & Kear에 의해 개발된 초등학교생을 위한 독서태도 설문 문항 20문항,³¹⁾ Alan & Lynn에 의해 개발된 Denver 독서 태도 검사 17문항,³²⁾ Gambrell 등에 의해 개발된 독서동기 설문 20문항,³³⁾ 옥정인에 의해 수정·보완된 읽기태도 설문 40문항³⁴⁾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연구자가 총 10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문항의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태도 문항

제2호(2012), pp.251-276.

30)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서울 : 학지사, 2000), p.49.

31) Michael C. Mckenna and Dennis J. Kear,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 *The Reading Teacher*, Vol.43, No.9(1990), pp.631-634.

32) Lynn Knebel Rhodes, *Literacy Assessment: a Handbook of Instruments*(Portsmouth : Heinemann, 1993), pp.16-18.

33) L. B. Gambrell et al., "Assessing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Vol.49, No.7(1996), pp.520-522.

34) 옥정인, 전계논문, pp.119-121.

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독서 롤모델 설문문항의 경우 독서환경에 관한 설문문항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독서 롤모델은 부모, 교사, 친구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독서유효성 설문문항은 앞의 이론적 연구에서 논한 경영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Mowday, Steers & Porter,³⁵⁾ 이성록,³⁶⁾ 구혜영³⁷⁾이 제시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독서활동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으며, 최종 개발된 설문문항은 예비조사(고등학생 30명)를 통해 설문문항 및 용어 등을 최종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측정도구 설문항목

측정영역		측정치표	설문문항	
이용자 특성		성별, 학년	1문항	
		부모 직업 및 학력	2문항	
		도서관 이용	4문항	
영향변인	도서관 영향	도서관 목적	3문항	
		도서관 심리	2문항	
		도서관 일반	4문항	
		독서 태도	1개 차원	10문항
		독서 롤모델	부모	9문항
	교사		6문항	
	친구		3문항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6문항	
		독서만족	4문항	
		독서지속의지	7문항	
	독서교육영향	가정, 학교, 사회, 통합	4문항	

2. 연구 가설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서유효성의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가설 1. 이용자 특성에 따라 독서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독서

35) R. T. Mowday, R. M. Steers and L. W. Porter,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1979), p.228.

36) 이성록,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2001), p.58.

37) 구혜영, 전계논문, pp.17-23.

태도는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은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고등학교는 조리, 식품, 식물, 애완 등 총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합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성적은 상위 20%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설문조사는 총 21개 학급 중 7개 학급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국어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2013년 7월 22일~23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배부된 204부 모두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적절한 22부를 제외한 182부를 분석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랐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각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요소에 대한 외생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서태도 및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ANOVA)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IV. 독서유효성 영향 요인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신뢰도계수가 0.953~0.87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2〉 설문항목 신뢰도계수

구 분	Cronbach의 알파	항목수
독서태도	0.932	10
독서 롤모델	0.926	25
도서관 영향	0.875	22
독서교육영향	0.897	4
독서유효성	0.953	17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조리과, 식품과, 식물과, 애완과 등을 갖춘 특성화 고의 특성상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설문 응답자의 경우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았으며, 설문에 응답한 학년은 1학년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 설문응답 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응답인원수

구분		인원(명)	유효빈도(%)
성별	남학생	62	34.1
	여학생	120	65.9
	합계	182	100.0
학년	1학년	124	68.1
	2학년	31	17.0
	3학년	27	14.8
	합계	182	100.0

학부모 직업으로 아버지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기능직 종사원인 기능숙련직과 자영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4> 설문응답 학생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구분	인원(명)		유효빈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직업	경영관리직	2	4	1.2	2.4
	전문직	5	10	3.1	6.0
	사무직	15	19	9.3	11.4
	서비스직	14	11	8.6	6.6
	판매직	17	4	10.5	2.4
	기능숙련직	8	34	4.9	20.4
	기계 조립직	5	19	3.1	11.4
	단순노무직	10	14	6.2	8.4
	자영업	16	32	9.9	19.2
	농림업,어업,축산업	2	7	1.2	4.2
	군인	0	2	0.0	1.2
	학생	1	0	0.6	0.0
	전업주부	53	0	32.7	0.0
	은퇴,무직	2	4	1.2	2.4
	기타	12	7	7.4	4.2
합계	162	167	100.0	100.0	
학력	무학력	1	0	0.6	0
	초등	5	8	3.1	4.8
	중등	9	8	5.7	4.8
	고등	83	92	52.2	54.8
	대학(교)	55	54	34.6	32.1
	대학원	6	6	3.8	3.6
합계	159	168	100.0	100.0	

독서 관련 변인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독서태도는 리커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2.47로 나타나 자신의 독서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독서 롤모델에 대한 평가는 부모, 교사, 친구 중 부모 롤모델에 대해 2.0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평균점수가 1.90으로 더 낮게 평가하였다. 교사와 친구의 평균 역시 2.34, 2.46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교육에 대한 영향은 학교나 사회보다는 가정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였으며, 학생들의 도서관 영향 평가는 2.11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자신의 독서유효성에 대한 평가 역시 보통(3점)이하의 점수를 주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몰입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지속의지는 다른 변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을 보아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만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독서변인별 기술통계

변인	하위차원	평균
독서태도	-	2.47
독서 롤모델	부모	2.00
	교사	2.34
	친구	2.46
도서관 영향	공공도서관	2.11
독서교육영향	가정	2.62
	학교	2.45
	사회	2.45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2.48
	독서만족	2.55
	독서지속의지	2.93

1.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이 검증

본 연구는 학생의 성별과 학년 그리고 학부모의 직업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6〉은 성별에 따른 독서 관련 변인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서태도, 도서관 영향 변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교사의 롤모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교육영향에서는 학교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6〉 성별에 따른 독서 관련 변인 검증 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독서태도	남	62	2.38	1.03	.335	
	여	120	2.52	0.85		
독서유효성	남	62	2.48	0.95	.043(*)	
	여	120	2.74	0.78		
독서 롤모델	아버지	남	60	1.91	0.95	.819
		여	115	1.88	0.70	
	어머니	남	57	2.05	0.98	.604
		여	115	2.13	0.86	
	교사	남	62	2.25	0.90	.283
		여	119	2.39	0.81	
	친구	남	61	2.21	1.09	.014(*)
		여	120	2.59	0.94	
도서관 영향	도서관이용	남	59	1.95	1.00	.903
		여	117	1.94	0.85	
	도서관방문	남	59	2.07	1.08	.577
		여	117	2.16	1.00	
	도서관심리	남	57	2.21	1.14	.135
		여	119	2.48	1.10	
독서교육영향	가정	남	61	2.36	1.11	.020(*)
		여	120	2.75	1.02	
	학교	남	61	2.30	1.05	.145
		여	120	2.53	0.97	
	사회	남	60	2.22	1.08	.034(*)
		여	120	2.57	1.02	

* P<0.05

이용자 특성 중 학년에 따른 차이와 부모의 직업과 학력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에서 학년의 경우 독서 롤모델 변인에서 친구의 영향만이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2.31) 보다는 3학년(3.09)이 독서에 서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과 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는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독서와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영향요인별 독서유효성 차이 검증

본 연구는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을 선정하였으며, 각 요인의 등급에 따른 독서유효성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독서태도는 리커트 5점척도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하였으며, 하위 20%

에서 상위 20%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독서태도 하위 20%의 독서유효성의 평균은 1.71이었으며, 상위 20%는 3.66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독서태도가 좋을수록 독서에 더 몰입하고 만족하고 있으며, 독서지속의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 분석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독서태도	하위 20%	37	1.71	0.56	0.09	.000
	21~40%	35	2.36	0.42	0.07	.000
	41~60%	32	2.64	0.53	0.09	.000
	61~80%	40	2.84	0.42	0.07	.000
	상위 20%	38	3.66	0.77	0.12	.000
계		182	2.65	0.85	0.06	.000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위해 실시한 사후분석결과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은 <표 8>과 같이 나타났으며, 독서태도에 따라 독서유효성의 차이 또한 여러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독서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독서에 몰입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독서를 지속할 의지가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8>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 사후분석결과

구 분	N	부집단				
		1	2	3	4	
Waller-Duncan	하위 20%	37	1.71			
	21~40%	35		2.36		
	41~60%	32		2.64	2.64	
	61~80%	40			2.84	
	상위 20%	38				3.66

부모나 교사, 친구들의 역할 모델에 따라 독서유효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서 롤모델의 영향력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독서 롤모델에 대한 전체 평균이 2점 초반임을 감안하여 평균 2점 미만을 '하'로 3점 미만을 '중'으로 3점 이상은 '상'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독서유효성의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 교사, 친구 모든 차원에서 각 그룹 간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나 교사, 친구에게 독서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독서에 대한 만족과 몰입, 지속의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9〉 독서 롤모델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 분석결과

구분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
독서 롤모델	1~2 (하)	2.42	2.30	2.44	2.04
	2~3 (중)	2.81	2.77	2.59	2.69
	3~5 (상)	3.43	3.30	2.90	3.07
계		2.89	2.79	2.64	2.60

* P<0.05

부모의 독서 영향력에 따른 차이는 각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에게 독서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 롤모델에 있어 어머니(3.30)보다 아버지(3.43)에게 관심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독서효율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서에서 아버지의 관심이 자녀들의 독서만족이나 몰입, 지속의지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독서 롤모델(부모)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구분	N	어머니			N	아버지	
		부집단				부집단	
		1	2	3		1	2
Waller - Duncan	1~2 (하)	79	2.30		96	2.42	
	2~3 (중)	62		2.77	62	2.81	
	3~5 (상)	31			17		3.43

독서 롤모델 중 교사와 친구의 영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사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영향을 가장 높게 평가한 집단과 가장 낮게 평가한 두 집단 간에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2.44와 2.90으로 부모나 친구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의 영향은 각 집단 전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2.04, 가장 높은 집단은 3.07로 독서효율성에 있어서 친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독서 롤모델(교사, 친구)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구분	N	교사		N	친구		
		부집단			부집단		
		1	2		1	2	3
Waller - Duncan	1~2 (하)	56	2.44	51	2.04		
	2~3 (중)	64	2.59	2.59	60		2.69
	3~5 (상)	61		2.90	70		3.07

도서관 영향에 있어 독서유효성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도에 대한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이 또한 전체 평균을 감안하여 2점 미만은 ‘하’ 집단으로 3점 미만은 ‘중’ 집단으로 3이상은 ‘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 간 독서유효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3가지 차원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차원에서는 3집단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고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도서관을 자주 찾을수록 높은 독서유효성을 보였다. 도서관의 직접적인 이용뿐 아니라 도서관에서의 친구를 만난다든지 시험공부, 과제 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학생들 역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도서관을 찾지 않는 집단보다 도서관을 어떤 이유에서든 지 가끔이라도 찾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 집단과 ‘상’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의 단순 방문에 있어서 영향 관계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도서관이 도움을 주는가?’ ‘도서관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도서관 심리 차원의 설문에서는 3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도서관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도서관에 대해 편안함을 더 느끼는 학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도서관을 더 많이 방문하는 학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독서활동에 있어 도서관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도서관은 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12> 도서관 영향 사후분석결과

구분		도서관 이용*				도서관 방문*			도서관 심리*			
		N	부집단			N	부집단		N	부집단		
			1	2	3		1	2		1	2	3
Waller-Duncan	1~2 (하)	85	1.98			80	2.28		55	1.94		
	2~3 (중)	61		2.75		50		2.83	48		2.70	
	3~5 (상)	30			3.32	46		3.08	73			3.19

* P<0.05

3. 영향요인에 따른 독서유효성 영향관계 검증

독서태도, 독서 몰모텔, 도서관 영향에 따른 독서유효성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독서태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독서태도가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독서태도가 독서유효성에 얼마만큼의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독서태도에 대한 독서유효성의 설명력은 54.9%로 독서태도가 1만큼 좋아졌을 때 독서유효성 역시 0.5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의 3가지 차원 중에서 독서태도는 독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독서태도와 독서유효성간 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유의확률
독서태도*독서지속의지	.665	.442	.439	.74700	.000
독서태도*독서만족	.706	.499	.496	.67195	.000
독서태도*독서몰입	.647	.419	.415	.65630	.000
독서태도*독서유효성	.741	.549	.547	.57158	.000

다음으로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 롤모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독서 롤모델과 독서유효성 사이에는 높은 영향관계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중 특이점은 교사(4.9%)의 경우 학생의 독서유효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독서 롤모델 중 독서유효성은 친구(23.4%)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우관계가 독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독서교육에 있어 학생들 간의 상호활동을 높일 경우 더 높은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4〉 독서 롤모델과 독서유효성간 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유의확률
아버지*독서유효성	.364	.133	.128	.78977	.000
어머니*독서유효성	.437	.191	.186	.76426	.000
부모*독서유효성	.402	.162	.157	.77505	.000
교사*독서유효성	.221	.049	.043	.82642	.003
친구*독서유효성	.484	.234	.230	.74703	.000

도서관 영향이 독서유효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도서관의 이용과 독서유효성간의 영향관계를 보면 설명력이 53.9%로 독서태도와 같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독서태도 만큼이나 도서관의 이용 또한 학생들의 독서만족이나 몰입, 독서지속의지에 많은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영향의 하위차원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직접적인 이용 목적인 도서 대출이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등을 잘하는 학생과 도서관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42.5%, 47.6%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시험공부, 과제해결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학생의 경우 설명력이 18.9%로 타 목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친구와의 만남이나 시험 공부 등의 간접적인 목적보다 대출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 직접

적인 이용 목적을 가지고 이용할 때 더 높은 독서 만족이나 몰입, 지속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 18.9%의 독서유효성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볼 때 독서교육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5〉 도서관 이용과 독서유효성 간 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유의확률
도서관이용*독서유효성	.652	.425	.412	.65637	.000
도서관방문*독서유효성	.435	.189	.175	.77951	.000
도서관심리*독서유효성	.690	.476	.469	.62276	.000
도서관*독서유효성	.734	.539	.513	.60208	.000

4.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 간 상관관계 검증

본 항목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독서교육이 학생의 독서생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가정, 학교, 사회 모두 보통 이하의 영향이 미쳤다고 응답하였음을 볼 때 여전히 독서교육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6〉 독서교육영향평가 평균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가정영향	181	2.62	1.06640
학교영향	181	2.45	1.00208
사회영향	180	2.45	1.04788
전체영향	180	2.44	1.01477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 간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학생들의 독서유효성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는 학교독서교육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이나 사회의 독서교육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독서유효성과 독서교육영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50 이하로 높은 상관관계라고는 볼 수 없었다.

〈표 17〉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유효성
가정영향	.454**	.440**	.348**	.459**
학교영향	.492**	.475**	.353**	.489**
사회영향	.465**	.374**	.373**	.448**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독서유효성이란 다양한 독서교육 및 독서지도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G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에 따른 독서유효성간의 차이 및 영향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평가한 자신들의 독서태도는 2.47이었으며, 독서유효성은 2.65로 평가하였다. 독서유효성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독서지속의지로 2.93이었고 전체적으로 모든 변인에 있어서 보통(3점) 이하의 평가하였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성별에서 독서유효성, 독서 롤모델 중 친구, 독서교육영향은 가정과 사회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와 독서유효성간의 영향관계는 독서태도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는 독서유효성에 54.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서 롤모델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영향은 친구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는 4.9%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영향과 독서유효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시험공부를 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학생(18.9%)은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42.5%)이나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학생(47.5%)에 비해 독서유효성에 낮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영향은 가정, 학교, 사회 중 가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응답자일수록 독서유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을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서유효성을 비롯하여 영향요인 모두에서 평점이 보통(3점)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는 현재 청소년의 독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독서진흥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독서 현실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2.00)의 역할이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것은 독서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가정에서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가정의 독서교육 및 독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독서유효성 및 독서태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독서는 정적인 활동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독서교육 또한 읽기 중심의 정적인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동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남학생의 경우 더 독서에서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남학생을 위한 동적인 활동 중심의 독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서 롤모델의 영향을 측정하 결과 독서유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 교사가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까지 독서교육을 담당함을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많은 독서진흥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독서교육의 현실은 이에 뒤따라주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거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가 높을수록 독서만족과 몰입, 독서지속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독서유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은 독서태도가 좋은 학생의 경우 대출이나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더 높은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서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유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하였으나, G지역 특성화고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까지의 확장과 더 나아가 전국을 대상으로 더 많은 표본 집단 확보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순 영향관계 뿐만 아니라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독서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향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혜영. 자원봉사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의 자원봉사자 활동유효성에 대한 영향.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5.
- 권미경. 도서대여를 통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12.
- 권은경.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249-269.

- 김대희, 엄해영. “부모의 읽기 태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생의 읽기 태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3권, 제4호(2012), pp.39-51.
- 김병주. 아동의 독서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1975.
- 김종성. “효과적인 독서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 인문학 논총, 제11권, 제2호(2006), pp.235-263.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 박경빈, 권혁민.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제21권 제1호(2011), p.1-17.
- 박정길. “한국인의 독서부진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pp.43-77.
- 변미경. 초등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독서 지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2013.
- 변우열. “독서태도 모형 분석을 통한 독서태도 조사 설문 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139-159.
- 옥정인. 읽기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99.
- 이경미. 초등학생의 독서 성향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 지도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 전공. 2006.
- 이경민.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2003), pp.127-145.
- 이만수.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pp.409-429.
- 이성록.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2001.
- 이연옥.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서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pp.293-309.
- 장윤금. “학교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pp.27-46.
- 정하보, 이정열. “교사의 셀프리더십, 팀워크, 교수효과성, 업무효과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2호(2012), pp.251-276.
-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제16권(2006), pp.383-405.

-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 학지사, 2000.
- 한윤옥.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 Gambrell, L. B. et al., "Assessing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Vol.49, No.7(1996), pp.518-533.
- Lipson, M. Y and Wixson K. K. *Assessment and instruction of reading disability: An interactive approach*. NY : Harper Collins, 1992.
- Mathewson, G. C.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edited by R. B. Ruddell et al. 4th ed.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4. pp.1131-1161.
- Mckenna, M. C. Toward a model of reading attitude acquisition. In: *Fostering the love of reading: The affective domain in reading education*. edited by E. H. Cramer and M. Castle.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4. pp.18-40
- Mckenna, M. C. and Kear J. D.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 *The Reading Teacher*, Vol.43, No.9(1990), pp.626-639.
- Mckenna, M. C., Kear J. D. and Randolph A. E. "Children attitude toward reading :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0, No.4(1995), pp.934-956.
- Mowday, R. T., Steers R. M. and Porter L. W.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1979), p.224-247.
- Phil Erwin. 태도와 설득, 고은경 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6.
- Quinn, R. E. and Rohrbaugh J.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29, No.3(1983), pp.363-377.
- Rhodes, Lynn Knebel. *Literacy Assessment: a Handbook of Instruments*. Portsmouth : Heinemann, 1993.
- Wang, J. H. and Guthrie, T. J. "Modeling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mount of reading, and past reading achievement on text comprehension between U.S. and Chinese studen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9, No.2(2004), pp.162-18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eon, Kyeong Mi. *Actual Reading Condition and Perception on Reading Guide of Elementary Students*. M.A.Thesis, Major in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Women's University. 2013.
- Byun, Woo Yeoul. "A Development of the Contents for the Reading Attitude Survey Questionnaire through the Analysis of Reading Attitude Mode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4(2012), pp.139-159.
- Chang, Yun Keum. "A Study on Facilitating School Library Reading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7, No.1(2006), pp.27-46.
- Chung, Hye Seung.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an attitude Toward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Vol.16(2006), pp.383-405.
- Jeong, Ha Bo and Lee Jeong Yul.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Teamwork, Teaching Effectiveness, Work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9, No.2(2012), pp.251-276.
- Kim Jong Sung, "A Study on Reading Behavior and Culture of Children and Young Adult."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11, No.2(2006), pp.235-263.
- Kim, Byong Ju. *An Analytical Study on Reading Status of School Children*. M.A.Thsesis, Major in Libr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1975.
- Kim, Dae Hee and Um Hae Young.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Their Parents' Reading Attitude and Students' Own Reading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23, No.4(2012), pp.39-51.
- Koo, Hye Young.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Organizational-work's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Service on the Volunteer's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2005.
-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Terminology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 Hakjisa, 2000.
- Kwon Mi Kyung. *Composition and Effects of Father Education Program via Book Lending*.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2.

- Kwon, Eun Kyoung. "Reading Education at School Libraries : New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4(2012), pp.249-269.
- Lee, Kyoung Mi. *Right Directions of Reading Guideline through the Analysis of Primary School Student's Reading Tendency*. Major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6.
- Lee, Kyoung Min.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Public Libraries Culture Program and Reading Activ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4, No.4(2003), pp.127-145.
- Lee, Man Soo. "A Study on the Events of Public Library for Reading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9, No.1(2008), pp.409-429.
- Lee, Sung Rock. *The Influence of Multi-dimensional Motive on Volunteer Action*.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ork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2002.
- Lee, Yeon Ok.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3(2011), pp.293-30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1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1.
- Ok, Jung In. *A Study 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Reading*. M.A.Thesis, Major in Korea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99.
- Park, Jeong Gil. "An Analysis of the Critical Factors Making Koreans Poor Readin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4, No.2(2003), pp.43-77.
- Park, Kyung Bin and Kweon Hyuk M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Disposi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leading Learning Trait of Gifted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21, No.1(2011), p.1-17.